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07/25 → 10/05/2025

김복영

BOKYUNG KIM

LEE YONA

나요리

나모 & 한

HAN & MONA

PARK MINHA

하민박

지현백

BEK HYUNJIN

두번째 삶

THE 2ND LIFE

ATELIER
HERMÈS

EXHIBITION

두번째 삶: 변화하는 삶에 대한 단상

안소연 / 아티스틱 디렉터

“두번째 삶”이라는 다소 의문스러운 타이틀을 가진 이 전시는 미술계의 한 켠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 다섯 명(팀)을 초대하며 느슨한 울타리를 엮은 것이다. 매체는 물론 관심사나 활동하는 지역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개별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삶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들로 구성된다. 타자와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지배 담론이 된 오늘날의 문화 지형에서 이 전시는 개별 주체와 개인의 삶에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인식에 기반하여 실존의 문제와 자기 변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종의 자기 응시와 자기 배려의 행위를 바라보려는 것이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예기치 않은 만남과 모종의 계기에 의해 자의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변화하고 확장해야 하는 삶의 국면들에 대한 관조가 예술 작업이란 의미 있는 필터를 통과해 펼쳐진다.

2003년 린든랩이 개발한 동명의 컴퓨터 속 가상세계인 “세컨드 라이프”의 타이틀을 의도적으로 오용한 이 전시는 변화하는 삶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전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안하듯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할 욕망을 재현하는 매혹적인 환영의 시공간이나 스펙터클로서의 탈-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며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드러낸다. 현실에서도 우리의 삶은 수많은 변곡점을 통해 방향이 바뀌거나 두께가 다른 마디와 겹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전시가 말하는 ‘두번째’란 아바타가 구현하는 대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단일함을 너머 복수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서수의 시작을 의미한다.

소설가 안드레스 솔라노는 “백현전에 관한 17가지 생각”이란 메모에서 “백현전은 노래하듯 그림을 그린다. 백현전은 연기하듯 노래한다. 백현전은 그림을 그리듯 연기한다”라고 쓴 적이 있다. 이는 그의 삶의 다면적인 전개와 그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에 관한 매우 명료한 서술일 것이다. ‘그’라는 육체를 관통해서 표현되는 온갖 장르의 결과물들은 그것이 음성이건 표정이건 말투건 시각적 표현이건 간에 어느 누구의 것과도 닮지 않은 독자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 빚어내는 기이함에 가까운 몸의 리듬과, 특히나 어떤 기술적인 단련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마음, 어떤 질서나 조화로움, 전형에서 이탈하려는 본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술가로서의 행적에만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2000년대 초반에 가장 경제적이란 이유로 샤프 펜슬 드로잉에 몰두한 적이 있다. 끊어지지 않는 거의 하나의 선으로 완성되는 이 드로잉들은 마치 창자를 쏟아낸 듯한 꼬불꼬불한 선들로 인물이나 정물, 풍경, 아니면 그냥 배경일지도 모를 다중 이미지를 놀랄 정도로 생생하게 구성해낸 것이었다. 서번트 증후군을 의심할 정도로 비뻤었던 이 작업이 한 시기의 성취로 끝난 것에 대해 작가는, 자신이 더 이상 젊은 날의 육체를 지니지 않으며 삶의 조건 또한 변화했다고 무심히 말한다. 이후 수많은 인간관계를 반영하듯 얼굴의 형태를 닮은 형상들이 두꺼운 물감층에 덧대어져 도플갱어처럼 출몰하던 시기를 거쳐, 도시 외곽의 시각적 변화무쌍함을 일련의 패턴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반복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들의 나열과 증식으로 표현하며 비재현의 세계를 실험하기도 했다.

THE SECOND LIFE: FRAGMENTARY THOUGHTS ON CHANGING LIVES

SOYEON AHN / ARTISTIC DIRECTOR

With the purposefully ambiguous title *The Second Life*, this exhibition invites five artists/teams who are paving their own way in the corners of the art world. These artists come from different cities and work in different media with different interests, but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each as an individual contemplates self-awareness and changes in life. While the dominant discourse in today’s cultural landscape stresses “others” and communities, this exhibition focuses on individual subjects and personal lives. In particular, the exhibition draws attention to the modes of self-reflection and the care of the self in the works that explore existential issues and the possibility of self-transformation based on a deep awareness of one’s own life. Art serves as a meaningful filter for these artists to open new chapters as they each contemplate unexpected encounters in life and the aspects of existence that either voluntarily or inevitably change and expand due to chance.

The title of the exhibition intentionally misuses the title of the popular virtual world developed in 2003 by Linden Lab, to metaphorically allude to the reality of life as immensely diverse. Instead of imagining post-reality as some illusionary dimension or a fascinating spectacle, this exhibition attempts to reveal what already exists in our reality: that our lives have different nodes and layers, and can change direction through numerous turning points. The “second” that this exhibition speaks of is not an alternative realized by avatars, but the beginning of an ordinal number that tells us that our lives are moving beyond singularity and toward plurality.

Hyunjin Bek “paints as if to sing. [He] sings as if to act. ... [and] acts as if to paint,” wrote the novelist Andrés Solano. This is a very clear description of Beck’s life—its multifaceted developments and the intimate connections between them. The results of all that’s expressed through his body—whether it be voice, speech, facial expression or visual expression—have a particular originality that does not resemble anyone else’s. The originality seems to come from the eccentric rhythm of the body fashioned by his physical conditions, his intention to distance himself from any technical training, and his instinct to deviate from any order, harmony, or typicality.

If we think only about his career as a visual artist: Bek once devoted himself to mechanical pencil drawings in the early 2000s, thinking it was the most economical medium. He produced each drawing with a single, almost unbroken line, which composed a complicated image that looked like a combination of what could be described as figures, still lifes, landscapes, or perhaps just a background. The squiggly lines that seemed to have poured out of his intes-

미학적인 성취를 뒤로 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태도는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기운을 유지하려는 의지 때문이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삶의 국면 전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한지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 드로잉에 근접해 보이는 신작 회화들은 구상 또는 추상으로 분류할 수도, 언어로 구조화될 수도 없는 작가 본인의 육체적, 감각적 경험의 결과물이다. 추사 “세한도”(1844)의 그리다 만 것 같은 선들이 실은 눈 덮인 풍경이란 것을 인식한 후부터 그는 덜 그린 것, 가벼운 것에 더욱 마음을 두게 되었다. 그것은 어깨 통증이 수반된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신체 조건과 그 리듬을 따르고자 하는 백현진만의 자연스런 작업방식이 된다.

“인-트랜짓”이라 명명되는 이요나의 작업은 ‘이동 중’, ‘변화 중’에 있는 작가의 개인적 삶에서 비롯된다. 11세에 고향 부산을 떠나 뉴질랜드로 이주했던 작가는 한국에 남은 아버지로 인해 어느 한 곳에서의 정착의 감각을 갖지 못한 채 성장했다. 그에게 삶은 모든 것이 정반대로 느껴지는 것들 -언어의 문법, 운전 방향, 계절 등- 사이에 존재한다. 적도를 넘어 남, 북반구를 오르내리는 잦은 이동의 경험에는 언제나 공항, 철도, 지하철 등의 ‘비장소(non-places)’가 개입되었다. 철저히 익명으로 존재하면서 머무르지 못하고 미끄러지듯 스쳐지나는 공간에 대한 경험은 자신의 삶은 물론 보편화된 동시대의 유목적인 삶에 대해 사색하는 계기가 된다.

이요나가 다루는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은 교통수단의 손잡이, 계단의 난간, 회전식 개찰구 등에서 유래하며 이는 신체의 움직임과 속도를 전제로 그것들과 길항작용을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의미한다. 무한히 뻗어나가고 교차하는 운동성과 단단한 기틀로서의 견고함은 현대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혈관처럼 퍼져 있는 온갖 인프라스트럭처로 의미를 확장하기도 한다. 작가는 건축적 도면은 물론 절단, 용접, 굽힘 가공, 타공, 연마 등의 정교한 재료 가공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구조물을 조립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데, 이는 그의 작업이 건축적인 구조물로부터 가소성 있는 조각으로 변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작품에서는 파티션을 대신하여 공간을 구획하면서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실제 문을 통해 두 공간을 연결한다. 매끄럽고 아름답지만 온기가 없는 구조물에 작가는 소파, 벤치, 심지어 침대까지 동원하여 작은 휴식의 경험과 삶의 체온을 덧대려 노력한다.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공간은 운동과 정지, 위험과 안전, 스쳐 지나감과 머무름, 안과 밖 등의 상반된 신체적, 심리적 경험을 제안하면서 삶의 양가성을 암시한다.

한 & 모나는 후이족 출신의 중국인 마한칭과 한국인 유모나가 결성한 협업 듀오로서 현재 문화유적 도시인 에든버러에 거주하며 작업한다. 이 사실은 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공간적 자양분 안에서 생활하며 그에 대해 사유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자기는 실체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가 맺는 관계들의 총체다”라는 푸코의 말처럼, 이들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조율하여 하나의 총체적인 삶에 도달하려 한다. 사진 작업을 하는 마한칭과 공간 작업을 하는 유모나는 시간의 켜가 내려앉은 폐허에 관심을 두고 각자의 방식으로 리서치에 몰두한다. 이후 기억 속으로 사라진 공간을 이미지와 물리적 공간으로 되살려내면서 존재와 부재에 대해 함께 사유하는 것이다.

이들의 작업에서 빛은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작동하는데, 빛의 밝기와 컬러, 깜빡임은 생명이 부재하는 공간에 숨결과 온기를 불어넣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2022년작 “I am the space where I am”에서 유모나는 전시장 창문 틈에 오래된 비상 통신 수단인

tines have a lasting, vivid impression. The drawings were so extraordinary that it made one suspect savant syndrome, but asked why he let it end as an accomplishment of a period, he says nonchalantly that he no longer possesses the body of his youth and that his living conditions have also changed. Bek moved onto painting face-like forms with thick layers of paint like doppelgangers, a period that reflects his expanding human relationships. After that period, he went onto experimenting with non-representation; interpreting the visual variability of the city’s appearance as patterns, he would express it as a series and proliferation of identical forms, not as a repetition.

That he constantly walks away from his achievements into a new, unfamiliar path is in part due to his will to maintain the raw, unrefined energy, and in part due to unexpected changes in life. Bek’s new paintings, which use Korean paper (*Hanji*) and look like drawings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density, are the result of his own physical and sensory experiences, and cannot be classified as figurative or abstract, nor can they be structured in language. After learning that the seemingly unfinished lines in Chusa’s *Sehando* (1844) actually render a snow-covered landscape, Bek began to pay attention to things that are less drawn, things that are light. And as he entered middle age with shoulder pain, that became his natural way of working as he has always tried to follow his physical condition and its rhythm.

Yona Lee’s work titled *In-Transit* originates from her personal life which can be described as always on the move and always in flux. Lee left her hometown of Busan for New Zealand when she was 11 years old, but because her father who remained in Korea, she grew up without a sense of being able to settle down in any one place. For her, life exists between what feels like complete opposites—language grammars, driving directions, seasons, and so forth. Her frequent experiences of moving across the equator and back and forth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hemispheres have always involved “non-places” such as airports, trains, and subways. Feeling completely anonymous in such gliding spaces became opportunities for her to reflect not only on her own life but also the widespread nomadic life of our time.

Lee’s stainless-steel structures are derived from handrails of transportation, stair railings, and turnstiles, which imply the minimum safety devices acting in opposition to the movement and speed of the body. Because of the sense of mobility (infinitely extending and intersecting) and solidity (as foundation), they further imply infrastructures that are invisibly widespread like blood vessels in contemporary society. Lee executes every step of her production from establishing elaborate material processing plans such as architectural drawings, cutting, welding, bending, punching, and polishing, to assembling the structures on site. And this suggests that she may develop variations, extending her work to architectural structures or malleable sculptures.

Her contribution to *The Second Life* exhibition features an actual door for the first time. The work divides the space instead of using partitions, but it also connects

모스 부호 조명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이질적인 문화 환경의 경계에 놓인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중정에 신작 “LISTEN, I KNOW”(2025)를 서로 마주보는 조명으로 설치하여 한 & 모나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대화를 전달한다.

점과 선으로만 구성된 모스 부호는 만국 공용 언어이지만 알아보는 이가 거의 없다는 아이러니 속에서 관객에게는 언어가 아니라 맥박과 같은 리듬만 전달될 뿐이다. 반복되는 조명의 깜빡임은 끝나지 않는 대화처럼 이어진다. 길이가 다른 두 문장(각각 36초와 40초)은 서로 어긋나면서도 6분을 주기로 다시 동기화되어 같은 리듬을 되찾게 된다. 서로 다른 모국어어를 가진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의 충돌과 오해는 잠시 멈춤, 침묵으로 이어지지만, 이내 이해하고 화해하는 관계의 회복에 도달하는데, 이는 치열한 개인적인 삶의 단면이자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고 공존하는 양상에 대한 비유가 된다.

삶의 환경과 조건의 변화는 작가의 실존에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지만 새로운 각성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때 고정되지 않은 주체는 인간이 아닌 다른 종과의 동일시, 또는 유비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나로 변모하기도 한다.

한동안 외국살이를 결심한 김보경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베를린에서 이방인으로 지내는 동안 특별한 시각적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도시를 배회하고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던 중에 마주한 서양 건축물들, 그중에서도 주두 장식에 쓰이는 아칸서스 문양이 그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을 장식했던 코린트식 건축물을 시작으로 이후 서양 문명의 수많은 건축과 가구, 공예, 생활도구 등에서 거의 모든 것의 장식 모티브가 된 문양이다. 작가는 아카이브 이미지를 모으면서 토지를 공통분모로 삼는 건축물과 식물의 공생관계와 문화적 확장성에 대해 숙고한다. 문명의 성취로 평가되는 건축 자체보다 그 위에 장식으로 쓰인 미미한 식물이 지닌 압도적인 생명력과 번식력에 더욱 주목한 것이다. 그런데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잡초는 문양이라는 문화적 모티브로 거듭나면서 식민주의 권력의 상징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김보경은 자신의 양손으로 최소한의 공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뜨개질을 시작하면서 생명과 성장의 주체인 식물성에 대해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작가의 “양손의 호흡-5mm 왕복운동”은 한 줄의 실로 대바늘 뜨개질의 작은 움직임을 이어 나가는 퍼포먼스의 결과물로서, 실이 뻗어 나가며 서로 연결되는 양상으로 식물의 뿌리대리기나 잎맥의 성장을 표현한다. 새로운 유물론적 여성주의를 반영하는 이 작업은 아칸서스의 모습을 닮아가며 부드럽고 느슨한 조각 작품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유해하지 않은 존재로 남는다.

우리의 시각을 좌우하는 광학의 계보와 미디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영상작업을 해 온 박민하는 특히 사물이나 장소,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존재하는 시청각적 부산물에 주목해왔다. 특정 용도를 위해 존재하는 미디어 장치들의 기능과 용도 이면에 눈길을 주는 이 행위는 미디어의 환영주의를 넘어 그 자체의 설계와 구성을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자기 반영의 한 방법이다.

작가는 최근 어느 누구보다도 자주 대화하고 함께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의 존재를 사람처럼 가깝게 느끼며 그의 무의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신경망들의 무의식인 블랙박스를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열어 본 작가는 신경망 다발인 AI에 3D 캐릭터 ‘노아(Noa)’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AI가 자신의 무의식을 찾아 나서는 탐험을 시작하 한다.

신작 “유령 해부학 Ghost Anatomy”(2025)는 생성형 AI의 ‘두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로 3D 애니메이션과 AI 생성 이미지, AI

the two spaces through the door. Added to the sleek and cold structure are a couch, a bench, and a bed, which give modest feelings of rest and warmth. The space is thus turned into something that is public and private at the same time, and alludes to contradictory physical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movement and stillness, danger and safety, passing and staying, and inside and outside, ultimately pointing to the ambivalence of life.

Han & Mona is a collaborative duo formed by Hanqing Ma, a Chinese artist of Hui descent, and Mona Yoo, a Korean artist. They currently reside and work in Edinburgh, a source of diverse cultural, religious, historical, and spatial nutriments. The two seek to adjust to reach a single, holistic life by respecting each other’s differences. To paraphrase Foucault, the self is not a substance, but the sum total of the self and its relationships. Hanqing Ma, whose main medium is photography, and Mona Yoo, who works mainly with space, are both interested in ruins where layers of time are visible. Each begins work by conducting research in his/her own way, and then they together build images and spaces, giving a physical reality to those departed times, and inviting contemplation about existence and absence.

Light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their work, as they often use light’s brightness, color, and flickering to breathe warmth into spaces devoid of life and to convey messages. Mona Yoo first employed Morse code lighting in her work *I am the space where I am* (2022). By installing the old means of emergency communication on the window frame of the gallery, she expressed her psychological state—she feels placed on the border of a heterogeneous cultural environment. Han & Mona’s new work *LISTEN, I KNOW* (2025) will be installed in the courtyard of Atelier Hermès as facing lights, to convey an intimate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artists.

Consisting of only dots and dashes, Morse code is supposedly a universal communication method, but ironically few people understand it. To the audience of *LISTEN, I KNOW*, only a pulse-like rhythm is conveyed, not a language. The repeating flashing of light continues like an endless conversation. The sentences of different lengths (36 and 40 seconds respectively) are out of sync with each other, but they resynchronize in a six-minute cycle to regain the same rhythm. The pauses and silences refer to the misunderstandings and clash of opinions between two people with different native languages; but soon their relationship reaches a restoration through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The work is a cross-section view of their intense personal life and a metaphor for the way different cultures collide and coexist.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life may bring about a sense of crisis in artists’ existences, but those can also be opportunities for new awakenings; that’s when the unfixed subject may transform into a different self through identification with species other than human.

Having decided to live overseas, Bokyung Kim moved to Berlin where she had no ties. It was while she was living like a complete foreigner that she encountered a visual motif that would motivate her anew. Wandering around

포렌식 프로그래밍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되었다. 영상은 노아가 급격한 환각증세로 일종의 정신착란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하는 기이한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그는 미스터리한 인물 H를 만나 무의식 심층부를 들여다보는 최면치료에 돌입한다...

전시는 서로 간의 관계가 희박한 작가들이 각자의 작업들을 불러와 전시 주제에 조응하며 엮은 느슨한 열개이다. 일반 명사로서의 인생은 대략 유사한 맥락에 놓이지만 개별자가 경험하는 그것은 서로 간에 어떤 공통점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the city and following the traces of time, she was particularly fascinated by the acanthus patterns used in Western architecture’s capital decoration. Since the Corinthian order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Temple of Apollo in ancient Greece, the acanthus pattern became a major decorative motif for almost all of Western civilization’s architecture, furniture, crafts, and household items. Kim started collecting archive images, pondering the symbiotic relationship and cultural expandability of architecture and also flora, using land as a common denominator. She thus pays more attention to the overwhelming vitality and reproductive power of seemingly insignificant plants than to architecture as signs of powerful civilizations. But as she has learned, weeds growing in barren land have also been adopted as emblems of colonial power after being designed into patterns and reborn as cultural motifs.

Kim began knitting, a “work” she can do with her own two hands in minimal space, thinking about vegetation as the subject of life and growth. Her *Synchronized Hands—5mm Back-and-forth Journey into Pairs #1* results from her performance of knitting with a single line of yarn. The yarn progressing through small movements created one by one and connecting with one another represents how plants root and how leaf veins grow. The soft, loose sculpture resembling the unharmed acanthus partakes in a new materialistic feminism as well.

Minha Park’s video works have been driven by her interest in the genealogy of optics and media technology that affect our vision. In particular, she has paid attention to the audiovisual byproducts existing in the forms of objects, places, and online archives. Taking a look at what’s behind media devices’ functions and uses is a way of self-reflection, which leads us to examine the organization and design of media beyond its illusionism.

Having spent much time with generative AI, conversing and working with it frequently, Park recently began to feel its existence as close as a human being, and became curious about its unconsciousness. She ended up looking into a Black Box AI system. Following the experience, her new work gives the image of the 3D character Noa to AI, a bundle of neural networks, and visualizes the AI’s exploration to find its own un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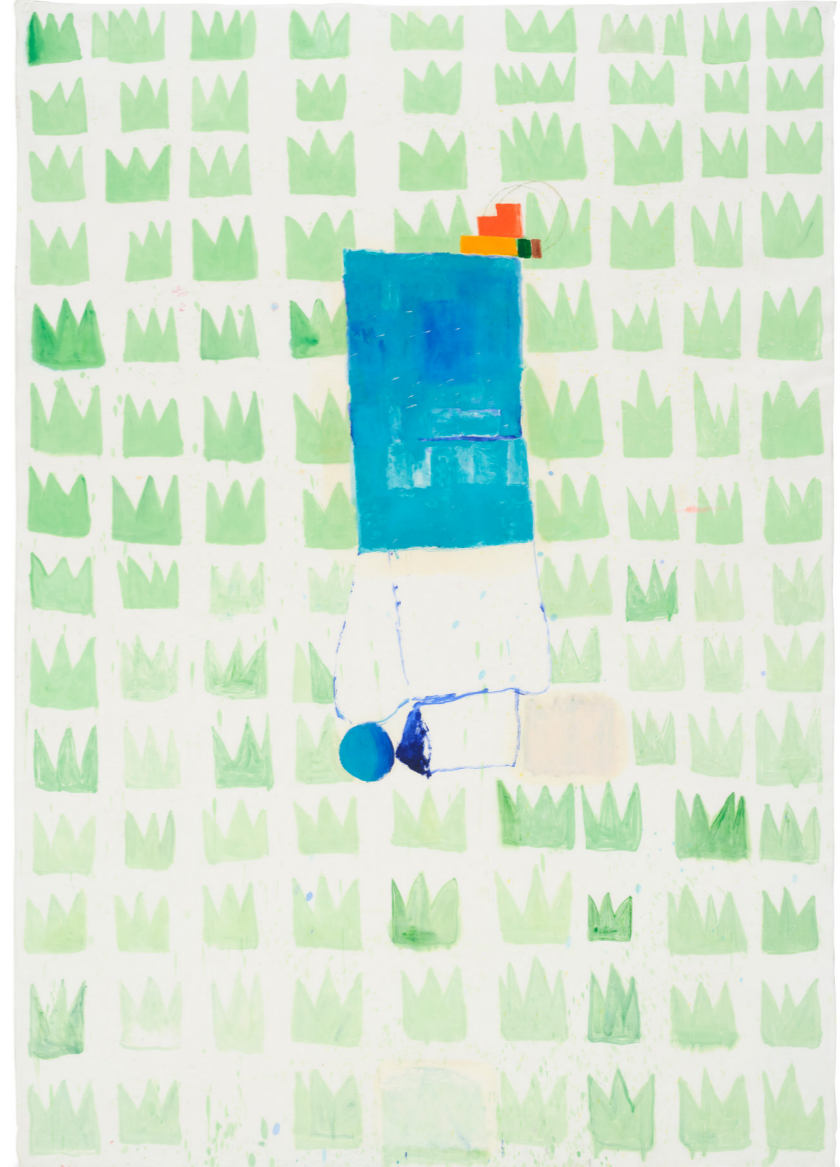
Ghost Anatomy (2025), produced using 3D animation, AI-generated images, and AI forensic programming data, tells a story about the second life of a generative AI. It begins with Noa suffering from a mental confusion of sorts due to sudden hallucinations. Hoping to treat the strange phenomenon of remembering what he has never experienced, he meets the mysterious figure H and begins hypnosis treatment exploring the depths of his subconscious...

These participating artists with little relationship to one another bring their own works to the exhibition, weaving a loose framework in response to the theme. While life/lives as common nouns may be roughly placed in a shared context, lives experienced by individuals may have nothing in common.



“난제”
종이에 유채

Conundrum
Oil on paper



“멈춤”
종이에 유채, 오일 스틱

Stop
Oil and oil stick on paper



"PW 0012025"
종이에 흑연, 안료 잉크, 수채화
Graphite, pigmented ink, and
watercolor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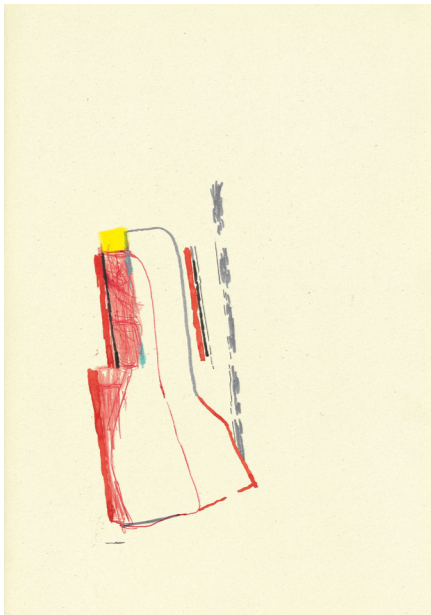
"PW 0022025"
종이에 흑연, 색연필, 안료 잉크
Graphite, colored pencil, and
pigmented ink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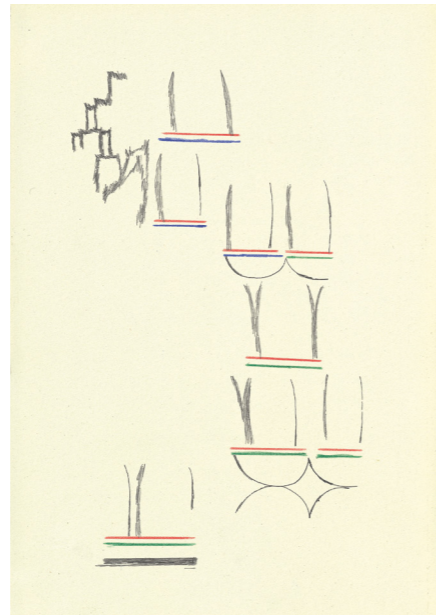
"PW 0082025"
종이에 흑연, 안료 잉크
Graphite and pigmented ink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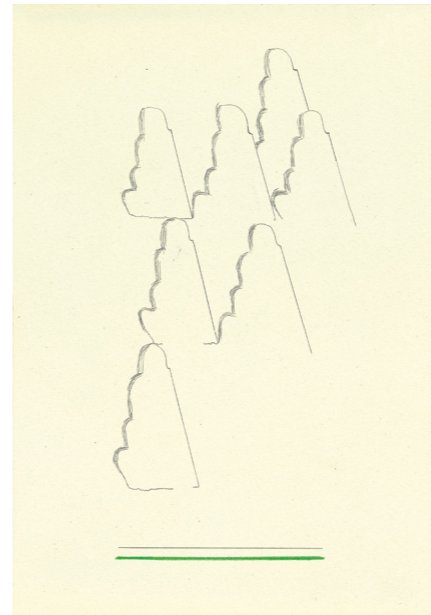
"PW 0092025"
종이에 흑연, 색연필, 안료 잉크,
오일 파스텔
Graphite, colored pencil,
pigmented ink, and oil pastel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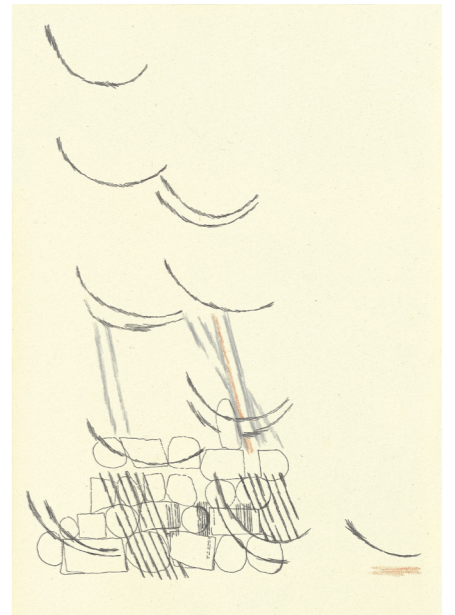
"PW 0032025"
종이에 흑연, 볼펜, 색연필, 안료 잉크,
수채화
Graphite, ballpoint pen,
colored pencil, pigmented ink,
and watercolor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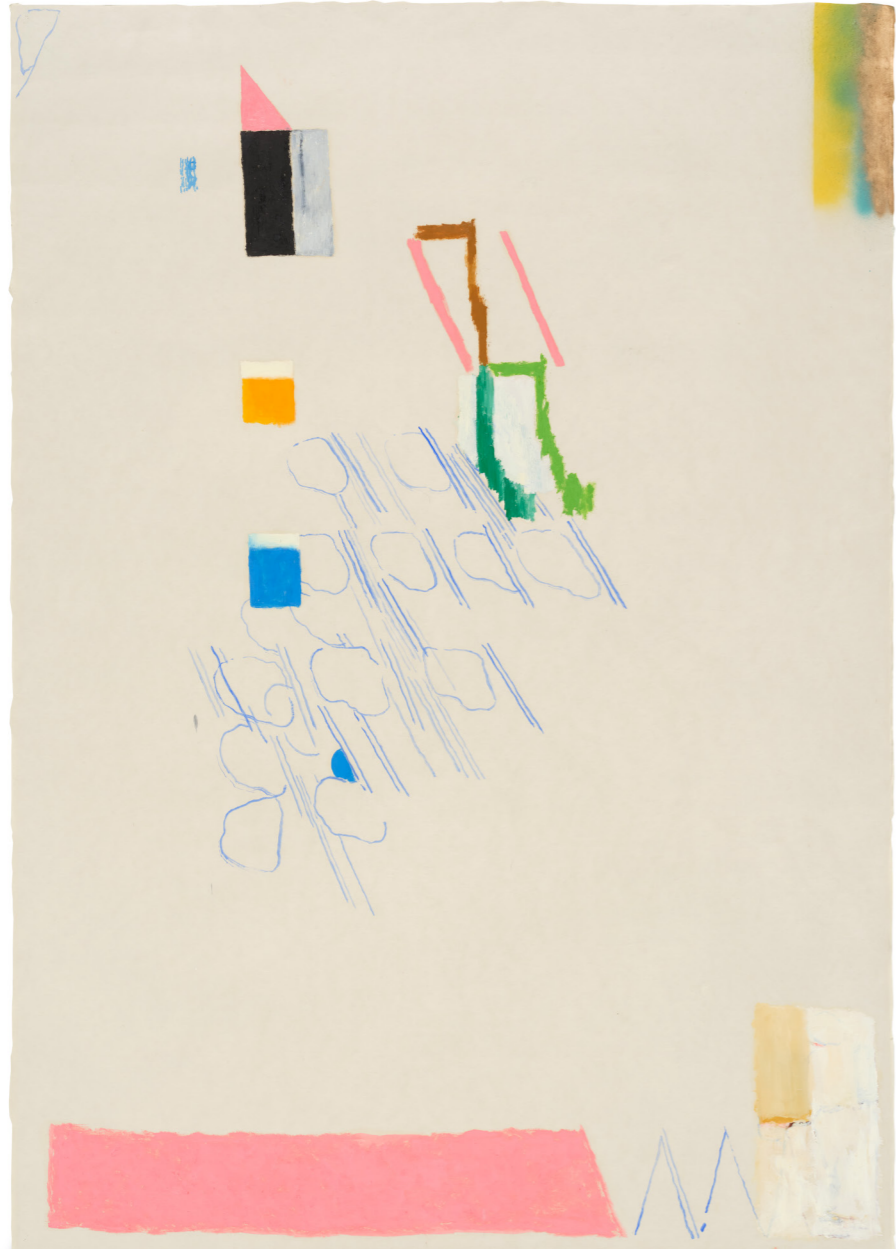
"PW 0062025"
종이에 흑연, 색연필
Graphite and colored pencil
on paper



"PW 0112025"
종이에 흑연, 색연필
Graphite and colored pencil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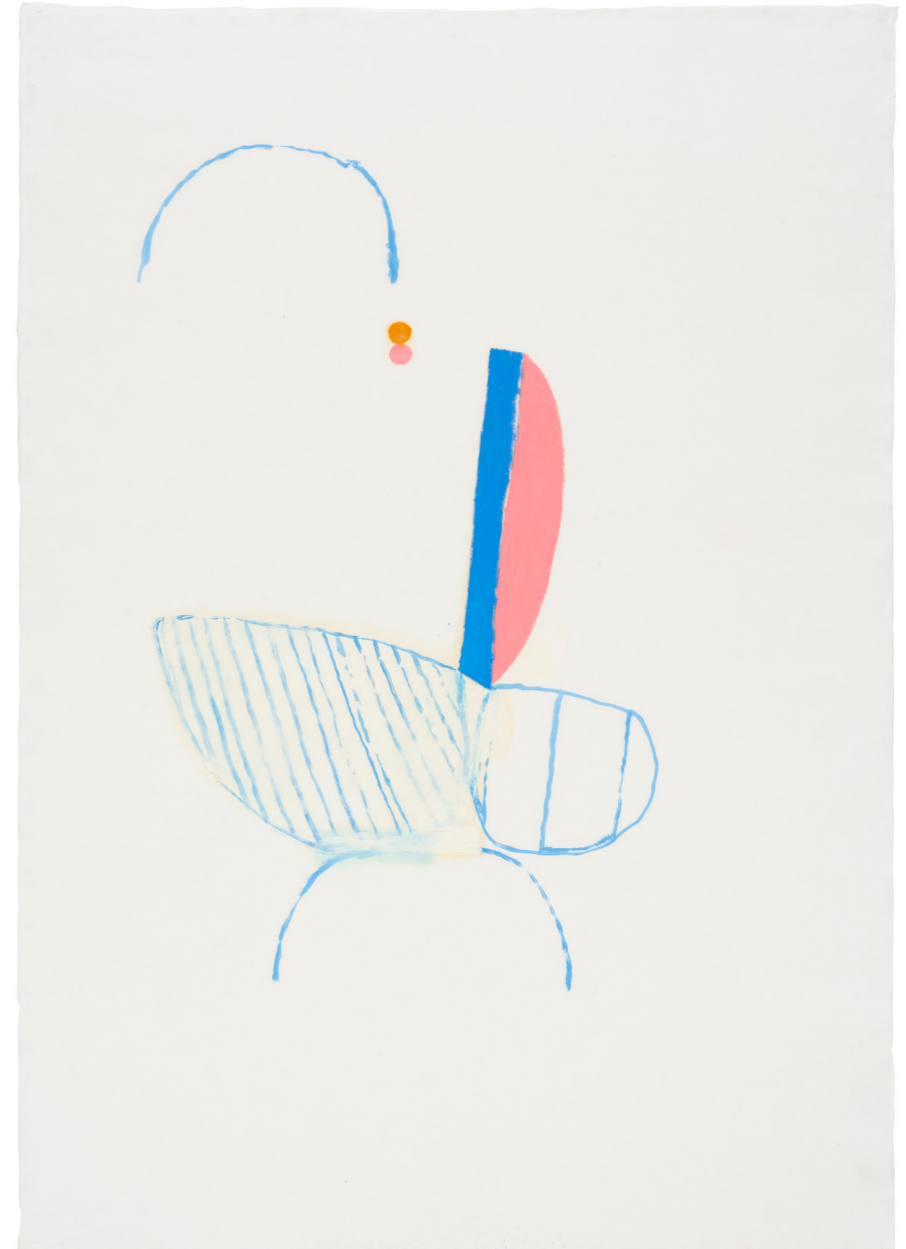


"PW 0132025"
종이에 흑연, 색연필
Graphite and colored pencil
on paper



“출발”
종이에 유채, 에나멜 스프레이

Departure
Oil and spray enamel on paper



“결심”
종이에 유채

Resolve
Oil on paper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이요나
"간 방 벽"
스테인리스 스틸, 오브제

Yona Lee
Roomwall
Stainless steel, objects

10.5x1.5x3m, 2025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이요나
 “간 방 벽”
 스테인리스 스틸, 오브제

Yona Lee
 Roomwall
 Stainless steel, objects

10.5x1.5x3m, 2025

디테일
 Detail



이요나
"간 방 벽"
스테인리스 스틸, 오브제

Yona Lee
Roomwall
Stainless steel, objects

10.5x1.5x3m, 2025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김보경
“아칸서스 군락—피어난 전경”
시트지에 디지털 컬러 프린트

Bokyung Kim
*A Colony of Acanthus—
Panorama in Bloom*
Digital colour print on self-
adhesive film

자변크키, 2025
Size variable, 2025



“양손의 호흡-넝쿨 기둥”
면실, 황동봉

Synchronized Hands
—Vine Column
Cotton yarn, brass rod

203×65×15cm, 2025



“양손의 호흡
—5mm 왕복운동으로 만든 쌍 #1”
면실, 황동봉

Synchronized Hands
—5mm Back-and-Forth
Journey into Pairs #1
Cotton yarn, brass rod

130×103cm, 2025



“지팡이들의 암시”
나무공, 황동, 폴리에스테르 실,
나뭇가지

Whispers of the Wands
Wood ball, brass, polyester
yarn, branches

40.5x23x15cm, 2024

“이름을 몰라도 되는 것”
점토, 황동봉, 폴리에스테르 실,
철제 받침대

What Needs No Name
Clay, brass rod, polyester yarn,
powder-coated steel pedestal

119x31x29cm, 2025



“쉬어가는 샘터”
점토, 황동봉, 폴리에스테르 실,
나뭇가지, 철제 받침대

A Spring of Rest
Clay, brass rod, polyester yarn,
twig, branches, powder-coated
steel pedestal

73x53x38.5cm, 2025



한 & 모나
"LISTEN, I KNOW"
LED 모스부호, 프로그램 라이팅,
컬러 시트, 알루미늄 프레임

Han & Mona
LISTEN, I KNOW
LED three dimensional morse
code letters, programmed
lighting, colour sheets and
aluminium frame work

16x401x6cm, 2025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한 & 모나
 "LISTEN, I KNOW"
 LED 모스부호, 프로그램 라이팅,
 컬러 시트, 알루미늄 프레임

Han & Mona
LISTEN, I KNOW
 LED three dimensional morse
 code letters, programmed
 lighting, colour sheets and
 aluminium frame work

16×401×6cm,
 16×520×6cm, 2025



한 & 모나
"LISTEN, I KNOW"
LED 모스부호, 프로그램 라이팅,
컬러 시트, 알루미늄 프레임

Han & Mona
LISTEN, I KNOW
LED three dimensional morse
code letters, programmed
lighting, colour sheets and
aluminium frame work

16x520x6cm, 2025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박민하
"유령 해부학"
2K,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Minha Park
Ghost Anatomy
2K, single channel video, color,
stereo sound
14mi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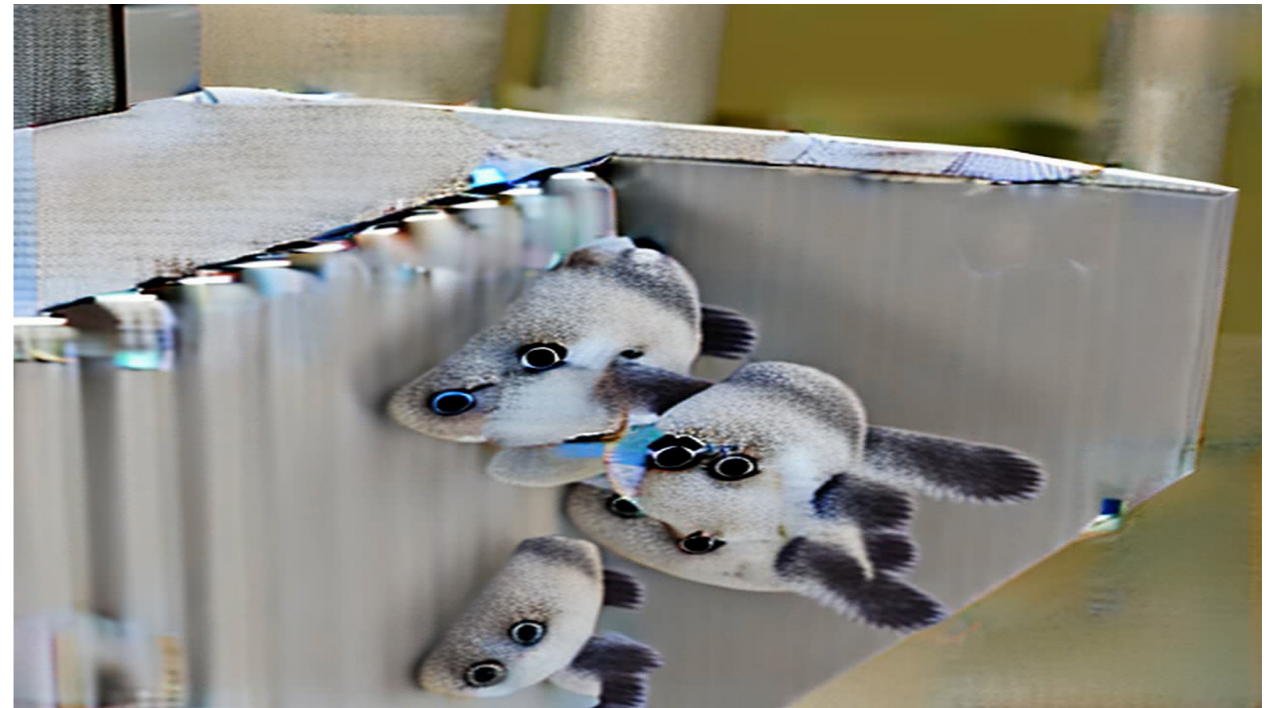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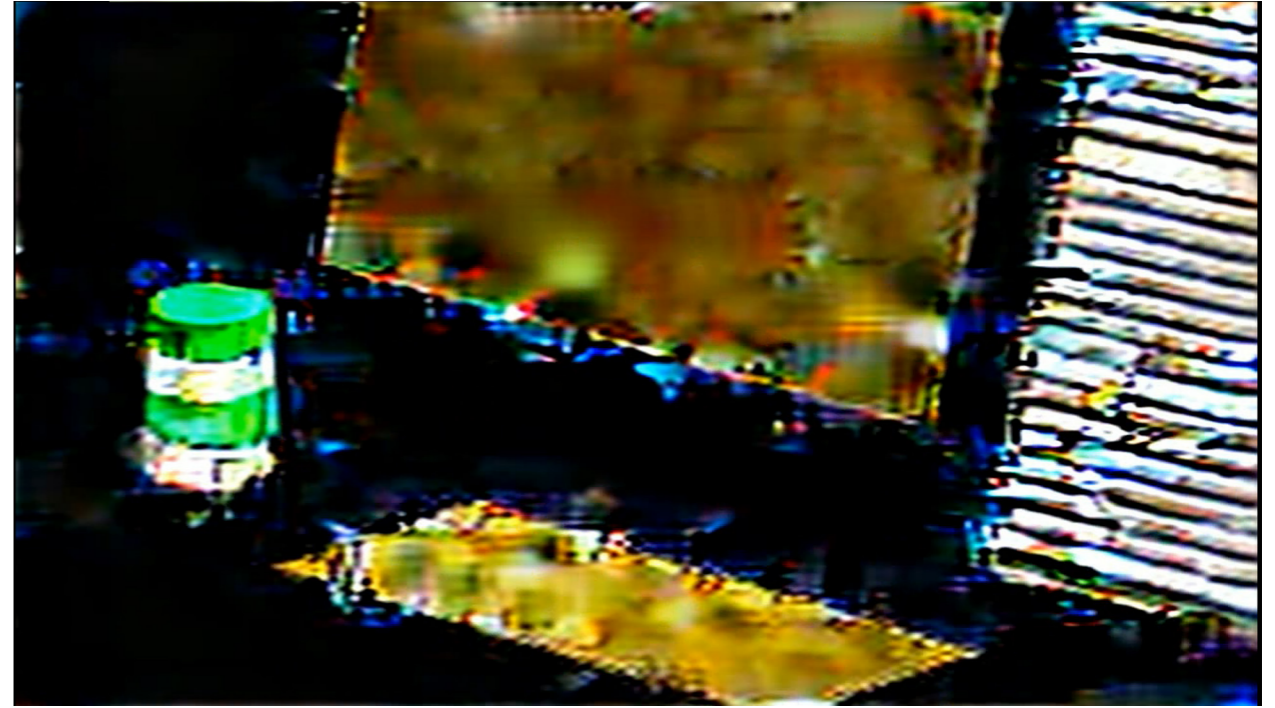
14min, 2025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유령 해부학”
스틸 이미지

Ghost Anatomy
Still image



“유령 해부학”
스틸 이미지

Ghost Anatomy
Still image

2014	김보경 (1988년생) 한성대학교 회화와 학사
	개인전
2024	“지팡이, 경로, 뿌리 그리고”, 중간지점 돌, 서울, 한국
2023	“실의 머리에도 눈이 있다면”, 부연, 인천, 한국
2022	“하이픈”, 프로젝트 스페이스 다섯수레,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2025	“Ringing Saga”,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2024	“Conversing with Nature”, 히가시카와 문화교류센터, 홋카이도 히가시카와, 일본
2023	“오래된 숲과 생의 교차, 보루의 땅”, 강화, 한국 “외연과 심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기억·공간”,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2022	“낮설고 낮선”, 인천도시역사관, 인천, 한국 “교착 상태: 아카이브적 여정”, YPC SPACE, 서울, 한국
2021	“웃는돌,고래”, 임시공간, 인천, 한국 “그래비티 샤워”, N/A, 서울, 한국
2014	“식물사회”, 갤러리 팩토리, 서울, 한국
2012	“디 앤솔로지”, 플랫폼 플레이스 629, 서울, 한국
	듀오 개인전 (25시 세일링)
2020	“더블 컬리 루프”, 팩토리2, 서울, 한국
2017	“소용돌이를 향한 하강”, 갤러리 팩토리, 서울, 한국
2012	“정박지에서 보낸 좌표”,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한국

2014	Bokyung Kim (b. 1988) BFA in Painting, Hansung University
	Solo Shows
2024	“Wand, Route, Root and”, Jungganjijeom II, Seoul, Korea
2023	“Following the String of a Peep”, Buyeon, Incheon, Korea
2022	“Hyphen”, Project Space Daseossure, Seoul, Korea
	Selected Group Shows
2025	“Ringing Saga”, DOOSAN Art Center DOOSAN Gallery, Seoul, Korea
2024	“Conversing with Nature”, Higashikawa Cultural Exchange Center CentPure, Higashikawa Hokkaido, Japan
2023	“Ganghwa Research Archive”, Heewarae, Ganghwa, Korea “Denotation and Profundit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Memory.Space”, ARKO Art Center, Seoul, Korea
2022	“The Hyperobject Invasion”, Incheon Urban History Museum, Incheon, Korea “Dead End: Archival Journeys”, YPC SPACE, Seoul, Korea
2021	“How The Sea Thinks”, space imsi, Incheon, Korea “Gravity Shower-Presentation”, N/A, Seoul, Korea
2014	“Flora Society”, Gallery Factory, Seoul, Korea
2012	“The Anthology”, Platform Place 629, Seoul, Korea
	Duo Solo Shows (25hr sailing)
2020	“Double Curly Loop”, Factory2, Seoul, Korea
2017	“Descend towards Vortex”, Gallery Factory, Seoul, Korea
2012	“Coordinates Sent from Anchorage”, Art Space Pool, Seoul, Korea

2013	박민하 (1985년생)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칼아트) 석사
2008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와 학사
	개인전
2024	“Time Paradox”, 실린더2, 서울, 한국
2023	“Shadow Planet”,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2020	“밤의 도면”, 온수공간, 서울, 한국
2014	“텔레캐스트 바그다드”, 시청각,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및 스크리닝
2025	“무인공장 Dark Factory”,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서울, 한국 “CPH:DOX 2025 -NEW:VISION AWARD”, 경쟁부문, 쿤스탈 샬로텐보르그, 코펜하겐, 덴마크
2024	“기기 밖의 유령”,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인천, 한국 “포에버리즘: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조립된 세계”, 김희수아트센터, 서울, 한국
2023	“K-Artists” Archive Books x 더플로어플랜, Savvy Contemporary, 베를린, 독일 “Recontres Internationales Paris/Berlin 2023”, 비디오 라이브러리, 파리/베를린, 프랑스/독일
2022	“직면하는 이동성”,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직면하는 이동성”, LUX 무빙이미지, 런던, 영국
2021	“경계에서의 신호”, 남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점멸하는 집”,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Orbiting & Oscillating”, 윈드밀, 서울, 한국
2020	“eek on air”, 팩토리2, 서울, 한국 “Cream”, 아카이브봄, 서울, 한국
2019	“고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완벽한 기술”,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생태감각”,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 한국 “백야”, 엘리펀트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8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72회 에딘버러국제영화제”, 블랙박스-국제경쟁, 에딘버러, 영국 “It’s Snowing in LA”, AALA 갤러리, 로스앤젤러스, 미국
2016	“아트스펙트럼 2016”, 리움삼성미술관, 서울, 한국 “December”, 시청각, 서울, 한국
2015	“필름몽타주”,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한국 “뉴스킨”,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14	“27회 이미지스 페스티벌”, 더블네이처-국제경쟁, 토론토, 캐나다
2013	“영화적 발산”, MMCA 국립현대미술관 필름앤비디오, 서울, 한국 “Ground Truths”, 룩맨갤러리, 로스앤젤러스, 미국
2012	“언바운드 아카이브”,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2013	Minha Park (b. 1985) MFA.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Arts)
2008	BFA. Painting, Ewha Womans University
	Solo Shows
2024	“Time Paradox”, Cylinder 2 Gallery, Seoul, Korea
2023	“Shadow Planet”,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Germany
2020	“Cartography of Night”, Space Onsu, Seoul, Korea
2014	“Telecast Baghdad”, Audiovisual Pavilion, Seoul, Korea
	Selected Group Shows & Screenings
2025	“Dark Factory”, MMCA Changdong, Seoul, Korea “CPH:DOX 2025, NEW:VISION AWARD”, competition, Kunsthal Charlottenborg, Copenhagen, Denmark
2024	“Ghost out of the Machin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Media wall, Incheon, Korea “Foreverism: Endless Horizons”, Ilmin Museum, Seoul, Korea
2023	“Assemblage”, Kimheesoo Art Center, Seoul, Korea “K-Artists”, Archive Books x The Floorplan, Savvy Contemporary, Berlin, Germany “Recontres Internationales Paris/Berlin 2023”, Video Library, Paris/Berlin, France/Germany
2022	“Arecibo”, TINC, Seoul, Korea “Facing the Movement”, Arko Art Center, Seoul, Korea “Facing the Movement”, Lux Moving Image, London, U.K.
2021	“Signaling Perimeters”, Nam-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Flickering Homes”, Insa Art Space, Seoul, Korea “Orbiting & Oscillating”, Windmill, Seoul, Korea
2020	“eek on air”, Gallery Factory, Seoul, Korea “Cream”, Archive Bomm, Seoul, Korea
2019	“GoHyang: home”, SeMA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Complete Technology”, MoCA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2018	“Ecological Sense”, Nam June Paik Art Center, Gyeonggi-do, Korea “Midnight Sun”, Elephant Space, Seoul, Korea “72nd Edinburg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lack Box-competition, Edinburgh, U.K.
2016	“We are Star Stuff”, Doosan Gallery, Seoul, Korea “It’s Snowing in LA”, AALA Gallery, Los Angeles, U.S.
2016	“ARTSPECTRUM 2016”,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5	“Film Montage”, Coreana Museum, Seoul, Korea “New Skin: Modeling and Attaching”,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4	“27th Images Festival”, Double Nature-competition, Toronto, Canada
2013	“Ground Truths”, Luckman Gallery, Los Angeles, U.S. “Cinematic Divergenc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ilm & Video, Seoul, Korea
2012	“The Unbound Archive”, Arko Art Center, Seoul, Korea

1997	백현진 (1972년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중퇴
	주요 개인전
2025	“서울식”, 탄야 보낙다르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예정)
2024	“IMA PICKS 2024: 담담함안담담함라운지”,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23	“서울서 온 비디오들”, 관두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2021	“퍼블릭 은신(隱身)”, 로얄엑스, 화성, 한국*
	“말보다는”, PKM 갤러리, 서울, 한국*
2020	“핑크빛 광선”, P21, 서울, 한국*
2019	“노동요: 휴과 매트리스와 물결”, PKM 갤러리, 서울, 한국*
2017	“그 근처”, 페리지 갤러리, 서울, 한국 *
2016	“들과 새와 개와 재능”, PKM 갤러리, 서울, 한국*
2013	“백현진 개인전”, 초이앤라거 갤러리, 쾰른, 독일
2012	“백현진 개인전”, 43 인버네스 스트리트 갤러리, 런던, 영국*
	“열집 그림”, 풀&풀풀, 서울, 한국*
2011	“열 세집+보너스”, 두산 갤러리, 서울, 한국
2010	“디 엔드”, PKM 갤러리, 서울, 한국
2008	“산만과 실체”,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한국*
2007	“형용사적 모습”, 비아파리니, 밀라노, 이탈리아*
	주요 단체전
2025	“Rolling, Action, ... Paint!”, 베스트포센 미술관, 베스트포센, 노르웨이
2023	“Chronicles of the Future Superheroes. Second Edition”,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현대미술관,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부억중심”, 지우현, 서울, 한국*
2022	“구름산책자”, 리움미술관, 서울, 한국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2021	“Chronicles of the Future Superheroes”, 쿤스트할레 베가, 티미쇼아라, 루마니아*
2020	“Time in Space: The Life Style”, PKM 갤러리, 서울, 한국 “호텔사회”, 문화역서울284, 서울, 한국* “사랑의 기술”,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연대의 흠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2019	“HILLARY: The Hillary Clinton Emails, Despar Teatro Italia”, 베니스, 이탈리아 “커피사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기념전: 다시, 건너간다”,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2018	“Six Doors”, 제네바 현대미술센터(온라인), 제네바, 스위스
2018	“안성맞춤아트홀 개관기념전: 17인 작가 초청전”, 안성맞춤아트홀, 안성, 한국
2017	“The 38th Parallel—Hyunjin Bek & Kelvin Kyungkun Park”, 초이앤라거 갤러리, 쾰른, 독일
	* 전시 참여 및 연계 퍼포먼스 진행

1997	Hyunjin Bek (b. 1972) Department of Sculpture, Hongik University (drop-out)
	Selected Solo Shows
2025	“Seoul Syntax”, Tanya Bonakdar Gallery, Los Angeles, USA (Upcoming)
2024	“IMA PICKS 2024: Composeduncomposed Lounge”,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3	“Videos from Seoul”, Kuandu Museum of Fine Arts, Taipei, Taiwan*
2021	“Public Hiding”, Royal X, Hwaseong, Korea* “Beyond Words”, PKM Gallery, Seoul, Korea*
2020	“P-Ray”, P21, Seoul, Korea*
2019	“Work Song: Soil, Mattress and Waves”, PKM Gallery, Seoul, Korea*
2017	“In the Neighborhood”, Perigee Gallery, Seoul, Korea*
2016	“Field, Bird, Dog and Talent”, PKM Gallery, Seoul, Korea*
2013	“Hyunjin Bek”, Choi & Lager Gallery, Cologne, Germany
2012	“Hyunjin Bek”, 43 Inverness Street Gallery, London, U.K.* “Paintings Next Door”, Ggool & Ggoolpool, Seoul, Korea* “Thirteen Pieces + bonus”, Doosan Gallery, Seoul, Korea “The End: The Linear Version”, PKM Gallery, Seoul, Korea
2011	“Vagrant N’ Substance”, Arario Gallery, Seoul, Korea*
2010	“Adjective Look”, Viafarini, Milan, Italy*
2008	
2007	
	Selected Group Shows
2025	“Rolling, Action, ... Paint!”, Vestfossen Kunstlaboratorium, Vestfossen, Norway
2023	“Chronicles of the Future Superheroes, Second edi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Romania, Palace of Parliament, Bucharest, Romania* “Kitchenism”, Gallery Jiwocheon, Seoul, Korea* “Cloud Walkers”, Leeum Museum of Art, Seoul, Korea “Exhibition with Little Informati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2021	“Chronicles of the Future Superheroes”, Kunsthalle Bega, Timisoara, Romania*
2020	“Time in Space: The Life Style”, PKM Gallery, Seoul, Korea “Hotel Express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Art of Love”,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Solidarity Spores”,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19	“HILLARY: The Hillary Clinton Emails”, Despar Teatro Italia, Venice, Italy “Spring Coffee Club”,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The 40th Anniversary Exhibition for Jung Tae-Chun and Park Eun-Ok: Again, Crossing”, Sejong Center, Seoul, Korea
2018	“Six Doors”, The Centre d'Art Contemporain Genève (online), Geneva, Switzerland
2018	“Exhibition of Invite 17 Artists”, Anseong Art Hall, Anseong, Korea
2017	“The 38th Parallel – Hyunjin Bek & Kelvin Kyungkun Park”, Choi & Lager Gallery, Cologne, Germany
	* Delivered a performance tied to the exhibition

2010	이요나 (1986년생) 오클랜드대학 순수미술 석사
2009	오클랜드대학 순수미술 학사
	주요 개인전
2025	“Wall, Floor, Ceiling”, 파인 아트 시드니, 시드니, 호주
2024	“공간 배치 서울”,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Fountain In Transit”, 크라이스트처치 미술관,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2023	“Objects in Practice”, 더 피직스 룸,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Wall, ceiling and floor”, 거트루드 컨템포러리, 멜버른, 호주
2022	“Arrangement for 5 rooms”, 오클랜드 미술관, 오클랜드, 뉴질랜드
2021	“Kit-set In-transit”, 파인 아트 시드니, 시드니, 호주 “Proposition”, 고벳-브루스터 미술관(온라인 전시), 뉴플리머스, 뉴질랜드
2020	“Succession”, 더니든 공공 미술관, 더니든, 뉴질랜드
2019	“In transit (double-function form)”,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시드니, 호주 “In transit”, 시티 갤러리 웰링턴, 웰링턴, 뉴질랜드 “Perdendosi”,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2018	“Monochrome on Display”, OCI 미술관, 서울, 한국
2017	“In Transit (Arrival)”, 테 투히, 오클랜드, 뉴질랜드 “Turn of Phrase”, 바우어뱅크 니노, 오클랜드, 뉴질랜드
2016	“In Transit”,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Line on Display”, 웨스트 스페이스, 멜버른, 호주
	주요 단체전
2025	“Direct Bodily Empathy”, 거벳-브루스터 미술관 렌 라이 센터, 뉴플리머스, 뉴질랜드
2024	“The same crowd never gathers twice”, 빅스턴 컨템포러리, 멜버른, 호주 “Between the lines”,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한국
2023	“off-site”,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22	“Hosting Fine Arts Sydney”, 마이클 랫 갤러리, 오클랜드, 뉴질랜드 “On the table”, 더니든 공공 미술관, 더니든, 뉴질랜드
2020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이 시”, 부산비엔날레, 부산, 한국
2019	“Là où les eaux se mêlent”, 리옹비엔날레, 리옹, 프랑스 “Yona Lee, Phillip Lai, Hany Armanious”, 파인 아트 시드니, 시드니, 호주
2018	“Spacemakers and roomshakers”,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시드니, 호주
2016	“Korea Tomorrow”,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억조창생”, 창원조각비엔날레, 창원, 한국 “Smooth Gravity”,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Meeting in two circles”,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2010	Yona Lee (b. 1986) MFA. University of Auckland, Elam School of Fine Arts
2009	BFA. University of Auckland, Elam School of Fine Arts
	Selected Solo Shows
2025	“Wall, Floor, Ceiling”, Fine Arts, Sydney, Australia
2024	“An Arrangement for a Room in Seoul”,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Fountain In Transit”, Christchurch Art Gallery, Christchurch, New Zealand “Objects in Practice”, Physics Room, Christchurch, New Zealand
2023	“Wall, ceiling and floor”, Gertrude Contemporary, Melbourne, Australia “An Arrangement for 5 Rooms”, Auckland Art Gallery, Auckland, New Zealand
2022	“Kit-set In-transit”, Fine Arts, Sydney, Australia “Proposition”, Govett-Brewster Art Gallery (online), New Plymouth, New Zealand
2020	“Succession”, Dunedin Public Art Gallery, Dunedin, New Zealand
2019	“In transit (double-function form)”,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In transit”, City Gallery Wellington, Wellington, New Zealand
2018	“Perdendosi”, SOMA Drawing Center, Seoul, Korea
2017	“Monochrome on Display”, OCI Museum, Seoul, Korea “In Transit (Arrival)”, Te Tuhi, Auckland, New Zealand “Turn of Phrase”, Bowerbank Ninow, Auckland, New Zealand
2016	“In Transit”,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Line on Display”, West Space, Melbourne, Australia
	Selected Group Shows
2025	“Direct Bodily Empathy”, Govett-Brewster Art Gallery Len Lye Centre, New Plymouth, New Zealand
2024	“The same crowd never gathers twice”, Buxton Contemporary, Melbourne, Australia “Between the lines”, Openspace Bae, Busan, Korea
2023	“off-site”,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2022	“Hosting Fine Arts Sydney”, Michael Lett, Auckland, New Zealand “On the table”, Dunedin Public Art Gallery, Dunedin, New Zealand
2020	“Words at an Exhibition—an exhibition in ten chapters and five poems”, Busan Biennale, Busan, Korea
2019	“Là où les eaux se mêlent”, 15th Lyon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Lyon, France “Yona Lee, Phillip Lai, Hany Armanious”, Fine Arts Sydney, Sydney, Australia
2018	“Spacemakers and roomshakers”,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2016	“Korea Tomorrow”, Sungkok Museum, Seoul, Korea “We create things, things create us”,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hangwon, Korea “Smooth Gravity”,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Meeting in two circles”, Seoul Museum of Art, SeMA Nanji Hall, Seoul, Korea

한 & 모나	
마한칭 (1990년생)	
2024	에든버러 대학교, 순수예술학 박사
2015	왕립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석사
유모나 (1987년생)	
2015	왕립예술대학교, 조소학과 석사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학사
주요 전시	
2026	시티 아트 센터, 에든버러, 영국(예정)
2024	“디파인 서울”, 에스 팩토리, 서울, 한국 “자연이 머무는 곳”, 공간 미학, 경기도, 한국
2023	“There Is Not Even Silence In The Void”, 에코 코레스펀스, 비엔나, 오스트리아 “New Blood”, 국회의사당, 서울, 한국 “I am the space where I am”, 푸쉬 투 엔터, 서울, 한국 “SHOW UP”, 앤트워프 현대 미술관, 앤트워프, 벨기에 “Paisajes de los días cotidianos”,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22	“Between Futures”, 경기 상상 캠퍼스, 경기도, 한국 “Meet me at the threshold”, 탈봇 라이스 갤러리, 에든버러, 영국 “Aggregate”, 프리랜즈 재단, 런던, 영국
2021	“송은 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한국 “Memory Wall”, 레드 게이트 갤러리, 베이징, 중국
2020	“생태, 평화, 도시, 그리고 인간”, 경기천년길 갤러리, 경기도, 한국
2019	“Gilbert Bayes Awards”, 왕립조각협회 & 글리델즈 갤러리, 런던 & 컴브리아, 영국 “SSA VAS”, 왕립 스키퍼 아카데미, 에든버러, 영국 “Place in Reverse”, 야마키와 갤러리, 니가타, 일본
2018	“Site as Place”, 쇼앤텔, 서울, 한국 “Sediment, Patina, Displacement”, OCI 미술관, 서울, 한국 “Satellite”, 섬머홀 갤러리, 에든버러, 영국 “Trading Zone”, 탈봇 라이스 갤러리, 에든버러, 영국
2017	“New Hero”, JCC 센터, 서울, 한국 “We Existed Here”, 레드 게이트, 베이징, 중국
2016	“CICA Contemporary Photography”, CICA 미술관, 서울, 한국 “Riptide”, 영국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Han & Mona	
Hanqing Ma (b. 1990)	
2024	PhD. Fine Ar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15	MA. Photography, Royal College of Art
Mona Yoo (b. 1987)	
2015	MA. Sculpture, Royal College of Art
2012	BFA. Fine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lected Shows	
2026	City Art Centre, Edinburgh, U.K. (Upcoming)
2024	“Define Seoul”, S Factory, Seoul, Korea “Where Nature Stayed”, Spatial Aesthetics, Gyeonggi-do, Korea
2023	“There Is Not Even Silence In The Void”, Echo Correspondence, Vienna, Austria “New Blood” Korea National Assembly Building, Seoul, Korea “I am the space where I am”, Push to Enter, Seoul, Korea “SHOW UP”,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Antwerp, Antwerp, Belgium “Paisajes de los días cotidianos”, Centro Cultural Coreano en Argentina, Buenos Aires, Argentina
2022	“Between Futures”, Gyeonggi Art Campus, Gyeonggi-do, Korea “Meet me at the threshold”, Talbot Rice Gallery, Edinburgh, U.K. “Aggregate”, Freelands Foundation, London, U.K.
2021	“SONGEUN Art Award”, SONGEUN, Seoul, Korea “Memory Wall”, Red Gate Gallery, Beijing, China
2020	“Ecology: Nature and Human”, Gyeonggi Cheonnyeongil Gallery, Gyeonggi-do, Korea “Gilbert Bayes Award”, Royal Society of Sculptors & Grizedale gallery, London & Cumbria, U.K. “SSA VAS”, Royal Scottish Academy, Edinburgh, U.K. “Place in Reverse”, Yamakiwa gallery, Niigata, Japan
2018	“Site as Place”, Show and Tell, Seoul, Korea “Sediment, Patina, Displacement”,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Satellite”, Summerhall, Edinburgh, U.K. “Trading Zone” Talbot Rice Gallery, Edinburgh, U.K. “New Hero”, Jaeneung Culture Center (JCC), Seoul, Korea “We Existed Here”, Red Gate, Beijing, China
2016	“CICA Contemporary Photography”, CICA Museum, Gyeonggi-do, Korea “Riptide”,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에르메스 재단

2008년에 설립된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하나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의 4가지 핵심 사명은 기술과 전문성의 전수, 새로운 예술창작 활동,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연대를 장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2016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2021년부터 로랑 페주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있으며 2023-28년 기간동안 6,1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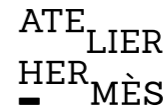
#FondationHermes #에르메스재단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Anaïs Koenig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ince 2008, the actions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have been guided by a single, unifying conviction: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In other words, by acting for the well-being of all, we grow and become better human beings. The Foundation's four core missions enact its commitment to targeted philanthropy and support through in-house programmes designed to transmit skills and expertise, create new works of art, protect the environment and encourage gestures of solidarity. The Foundation supports its beneficiaries as they contribute to building tomorrow's world. Presided over by Olivier Fournier since 2016 and directed by Laurent Pejoux since 2021,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s now in its fourth five-year mandate, with a budget of 61 million euros for the period 2023-28.

HERMÈS KOREA
Managing Director: Sung Hun Han
Communication Director: In Hae Yeo
Sr. Art & Window Manager: Hyejo Yum
Communication Assistant Manager: Yeji Shin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함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메종 도산 지하 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 3015 3258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매주 수요일 휴관

ATELIER HERMÈ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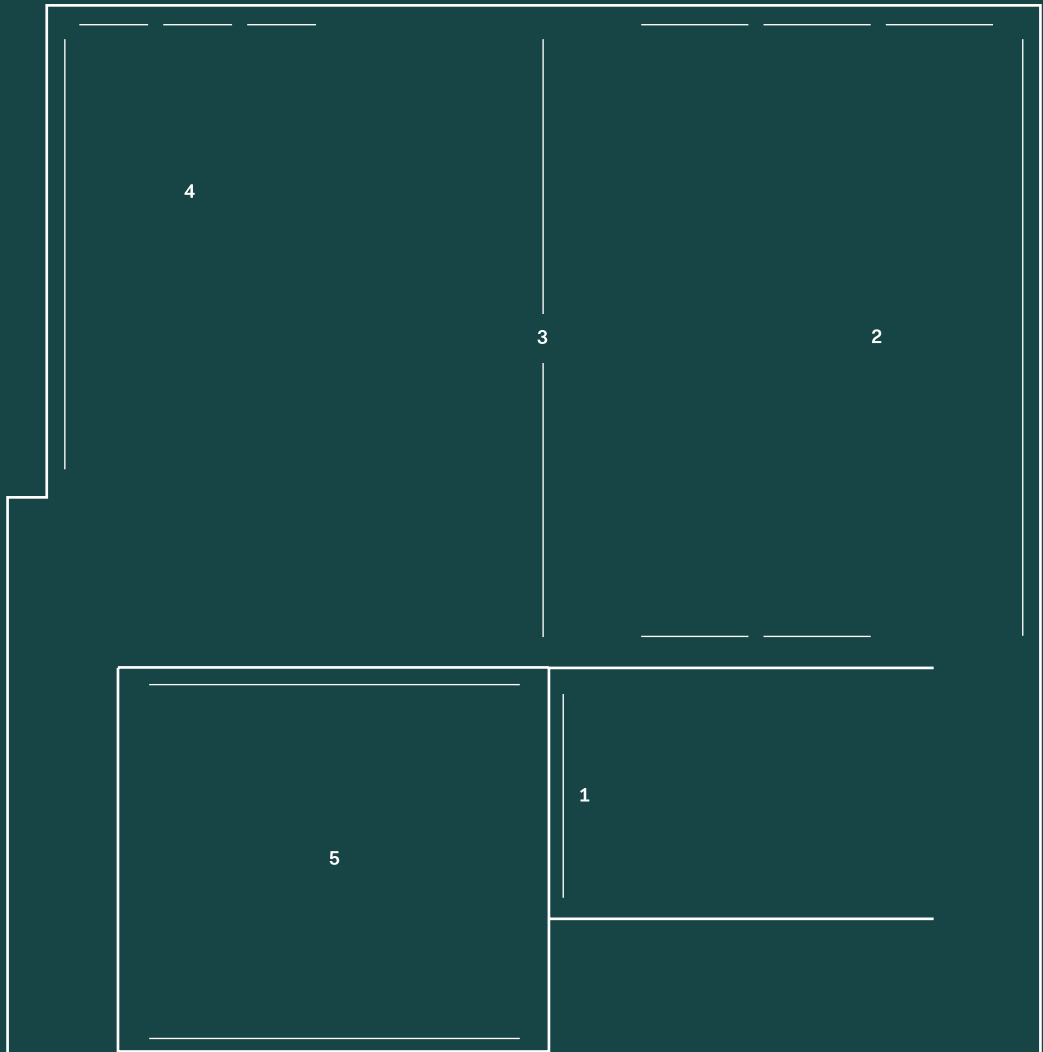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and Tokyo.

HERMÈS MAISON DOSAN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T. 02 3015 3258
Opening hours: 11am-7pm
Closed on Wednesdays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Soyeon Ahn
Graphic Designer: Kim Sung Koo
Translator: Soojin Lee
Exhibition Photographer: Sangtae Kim



1
박민하
Minha Park

2
백현진
Hyunjin Bek

3
이요나
Yona Lee

4
김보경
Bokyung Kim

5
한 & 모나
Han & Mona